

검정고시 거치지 않고 초·중학교 학력인정 가능

전남교육청,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5월 29일 곡성군 학교부정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에서 도교육청, 꿈드림 센터장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하 학습지원사업) 연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학습지원사업은 취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 경험,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 등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위탁기관으로 영광·광양·화순·보성·곡성 꿈드림을 지정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합사례회의에서는 각 센터 별 관리사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 지난달 25일 학력인정 기준을

통과한 최○○군의 중학교단계 학력인정 증명서를 김마라 방문상담사(곡성군 꿈드림 소속)에게 전달했다.

최군의 사례관리를 담당했던 김마라 방문상담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면서 “제 자신이 한번 더 졸업한 것처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 사업은 학교와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곡성군 학교부정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에서 열린 연합사례회의 회의

한편, 도교육청은 학습지원사업 연합사례회의를 격월로 실시할 예정이며, 1년에

2회(5월, 11월 예정)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12월에 학력인

정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알쓸편소 연수’ 실시

8일부터 ‘알아두면 쓸모있는 편리한 소프트웨어 연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2020학년도 소프트웨어 연수 중 하나인 ‘알쓸편소(알아두면 쓸모있는 편리한 소프트웨어) 연수’를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오는 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10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알쓸편소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

고 있는 온라인 원격수업 중 ‘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연수 내용은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과 편집, 구글 폼을 이용한 설문조사, 원격수업에 유용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이고, 연수를 통해 원격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 양방

향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알쓸편소 연수’를 신청한 교원은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실시간 화상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강사와 연수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연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연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보원은 실시간 양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직무연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위기학생 사회안전망 매뉴얼 보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 브로셔(이하 브로셔)’와 ‘학업중단 숙려제·정보연계·위탁교육 길라잡이 책자(이하 책자)’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 브로셔에는 △ 학업중단 위기학생 행동유형별 대처방안 △ 대안교육 위탁교육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및 학업복귀·학업지속 등 학업중단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이 상황별로 안내돼 있다. 또,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및 대안학교 △ 대안교육 위탁교육·특별교육·치유기관 △ 전라남도 사회안전망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소개됐다.

책자는 △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 대안교육 위탁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업무마다 △ 업무 운영 △ NEIS 업무지원 △ Q&A 등으로 구성해 업무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자료개발팀’ 및 전라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학교부정소년지원센터 등 실무자로 구성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자료의 실용성을 높였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업중단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각 위기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들에 대한 정보 안내가 부족했다.”며



“브로셔와 책자가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지원에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교육청, 농업계 특성화고 교사 직무연수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혁신” 위해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전남 도내 농업계열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농업전문기술교육 직무연수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29일(금) 오후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농업계열 특성화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기술교육 직무연수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농업계고 저경력 교사의 농업실무능력 강화를 목표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 11월까지 과정 별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강의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실험실습실 관리 능력 향상 부분, 전문기술교육(60과정) 부분으로 편성됐으며, 첨단 농업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지향 농업기술 및 현장 전문기술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교육경력 10년 이내의 저경력 교

사가 미래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기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정을 선택해, 교사 1명 당 최대 3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과정 당 7~21 시간의 교육과목을 편성해 첨단농기 실습 교육 및 이론교육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업계고와 첨단농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농업계고 전문기술교육 직무연수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특히,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등을 다양하게 이뤄 수업혁신 및 지역사회 연계 수업방법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남 농업계고 교사 전문기술 교육 직무연수를 통해 농업계열 특성화고가 중등 직업교육의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점검의 날 퀴즈대회

광주시교육청, 4일 본청 직원 대상

광주시교육청이 제291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를 위한 퀴즈대회 행사를 오는 4일 실시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생활 속 안전문

화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기관)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계절별·월별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본청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대응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됐다.

조인호 기자

